

산업보건 주요뉴스

2015년 5월 서울, 세계 안전보건 중심 된다

안전보건공단, 세계적 석학 10명 기조연설자 확정 등 준비 만전

내년도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산업보건대회에 큰 틀이 정해졌다.

2015년 5월 31일부터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산업보건대회가 200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국의 기조연설자 10명이 확정되고, 240개 주제발표 세션에 대한 2,500편의 초록접수가 완료되었다.

추최 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에 따르면, 내년 서울대회에는 약 120개국에서 3,400여 명이 참가,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열린 30회 멕시코 대회의 경우, 93개국에서 2,5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29회 대회 때 호주와 아일랜드를 제치고 제 31회 대회 개최국으로 선정되었다.

국제산업보건대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산업보건분야의 범 세계적 대회로 전세계의 산업의학, 위생, 간호, 인간공학 등 산업보건 학자 및 전문가들이 3년마다 모여 학술발표 등 정보를 교류하는 행사이다.

내년 서울대회에는 영국, 벨기에, 네델란드, 유럽연합(EU), 미국, 핀란드 등 산업보건분야의 대표적인 세계 석학 10명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한다.

방향을하는 기조연설자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레이몬드 에이지스(Raymond Agius) 교수, 벨기에 루벤 대학교의 베노이트 네메리 드 벨레박스(Benoit Nemery de

Belleveau) 교수, 유럽연합 산업보건심리학술원의 스타브로라 레카(Stavroula Leka) 교수 등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다.

기조연설자들은 매일 2명씩 행사 시작 전 고령근로자 문제, 독성화학물질 문제, 나노기술의 잇점과 폐해 등 현대 산업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해결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대회에서는 66개 학술주제 아래 240개 세션이 열리며, 이와 관련해 세계 각국에서 2,500개의 논문 요약본인 초록이 접수·완료되었다. 지난 멕시코 대회 때 160개 세션에 1,800개 초록이 접수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 밖에도 국제학술위원회와 워크숍, 심포지엄 등이 운영되고, 국제안전보건 전시회가 함께 열려 전문가는 물론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전 세계 산업안전보건관련 최신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다.

공단은 대회 홍보를 위해 11월 19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세계산업안전 보건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는 한편, 국내조직위원들과 준비상황을 체크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내년 서울대회로 인한 기대효과로 560명의 고용창출, 약 6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한국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국제적 지위 향상을 예상하고 있다. 🍷